

# With You

유엔난민기구(U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로 보기



2023 Spring

통권 48호



2023년, 계속된 전쟁과 재난 속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 유엔난민기구(UHCR, UN Refugee Agency) 소개\*

- 135개국** 유엔난민기구 활동국
- 18,881명** 전 세계 직원
- 89,300,000명** 전 세계 강제 실항민 (2023년 기준 1억 명 이상)
- 노벨 평화상 2회 수상** 1954년 / 1981년

\* 출처: 2022 UNHCR Global Report, 2021년 말 기준

### Contents



- 03 현장에서 온 편지**  
심리 치료견과 함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마리아의 이야기
- 04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2023년 직면한 3가지 사태:  
2023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재난...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① 우크라이나 전쟁 1년  
② 시리아 내전 12년  
③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 18 With You가 만난 사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현장 직원들
- 20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 22 유엔난민기구 소식**
- 23 고맙습니다**  
후원 신청서
- 24 고맙습니다**  
후원자님께 보내는 메시지

### Cover Story



우크라이나 슬로비안스크(Sloviansk)에 사는 안젤라(Anzhela)가 조카를 안고 유엔난민기구 파트너 기관이 나눠주는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 Humanitarian Mission Proliska/ UNHCR/Artur Ulianytskyi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인** 전혜경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팀  
**디자인** (주)이팝

#### #해시태그 캠페인

With You 2023년 봄호 소식지 표지를 찍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에 해시태그 #유엔난민기구 #난민과함께 와 같이 올려주세요. 포스팅 인증사진을 문자(1666-5398)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의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보내드립니다.

기간 2023년 3월 31일 (금)

## 심리 치료견과 함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마리아의 이야기

아홉 살 소녀 마리아(Maria)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올 때 사랑하는 반려견을 집에 두고 와야 해서 슬펐습니다. 다행히 마리아는 현재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누아르(Noir)라는 이름의 심리 치료견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치료 세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지만, 부드러운 털의 보더콜리를 쓰다듬는 데에는 미소 이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동물 치료는 유엔난민기구가 부다페스트시,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설립한 부다페스트 헬프 인포 커뮤니티 센터(Budapest Helps! Info and Community Centre)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약 200명이 방문하는 이 센터는 어린이 놀이방, 언어 수업, 요가, 우크라이나 합창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리아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이런 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 8월 우크라이나 빈니차(Vinnytsia)를 떠나 두 딸과 함께 헝가리로 들어온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유엔난민기구 지원 센터동물 치료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마리아 ©UNHCR/Zsolt Balla

전쟁이 길어지면서 난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혹은 상실을 겪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에는 3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임시 보호 지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의료 및 법률 보조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늘리는 한편, 난민의 정신 건강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기관인 코델리아(Cordelia) 재단 소속 치료사들을 통해 작년 헝가리 전역에서 우울증 혹은 불안감을 겪고 있는 난민 400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난민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심리 치료견 누아르와 마리아 ©UNHCR/Zsolt Balla



마리아의 이야기 더보기



### 유엔난민기구 온라인 채널

-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
-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
- 유튜브** youtube.com/unhcrkorea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nhcr\_korea
- 페이스북** facebook.com/unhcr.korea
- 트위터** twitter.com/UNHCRKorea

# 2023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재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

2011년 3월 15일

 **시리아 내전 12년**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1개월**

하지만 이 숫자들 너머,  
삶은 계속됩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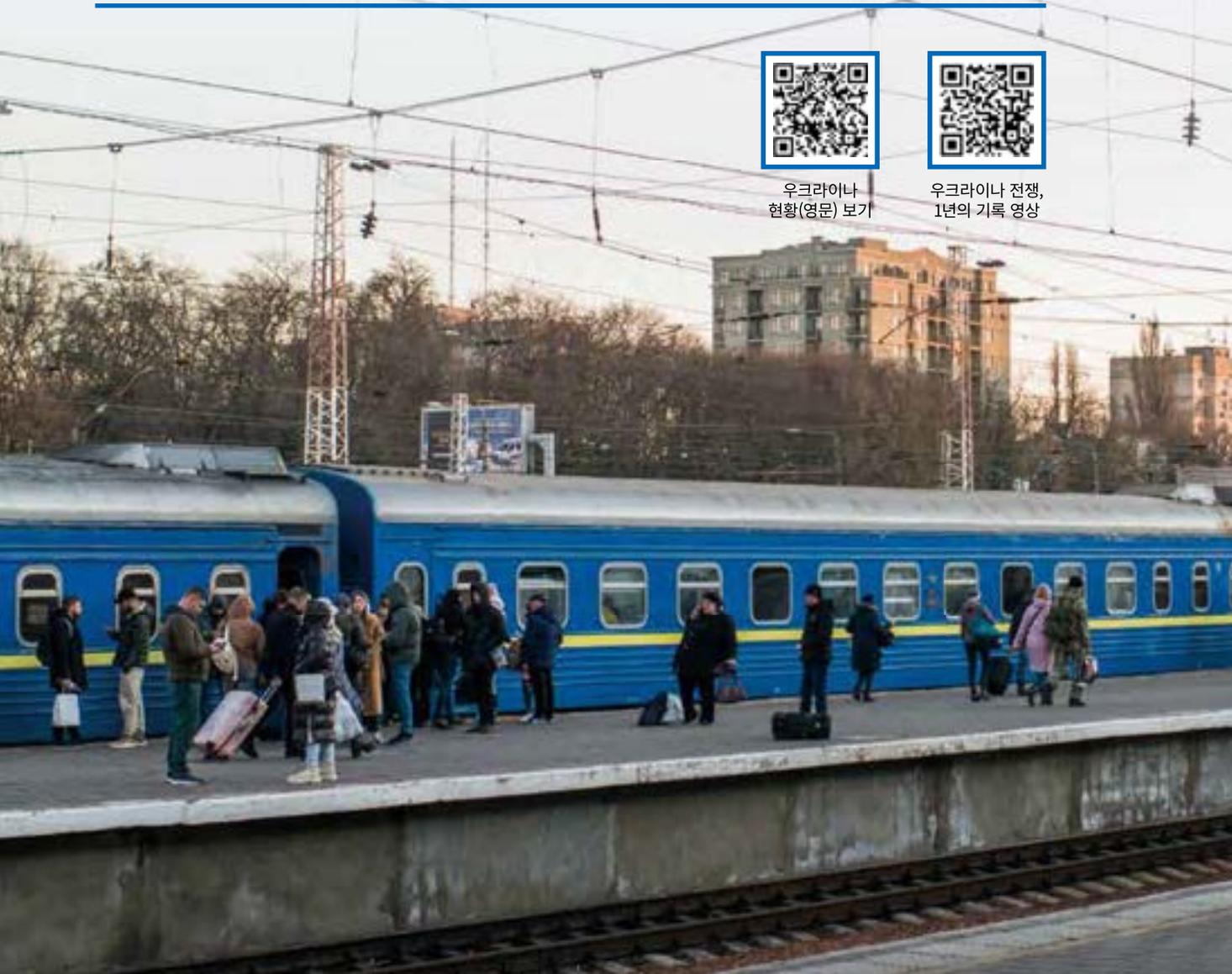
“일상을 잃었지만,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현황(영문)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의 기록 영상



## 1년의 전쟁이 남긴 것

지난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전개된 난민 위기 상황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강제로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a) 기차역, 미콜라이우(Mykolaiv), 헤르손(Kherson) 등의 지역에서 이곳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인도적 기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 UNHCR/Colin Delfosse

### 한눈에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설문조사(영문) 자세히 보기

유럽 내 보호 조치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난민 중 여성과 아동 비율



민간인 사상자

(출처: 유엔인권이사회(OHCHR), 2월 27일 기준)



전쟁 여파로 식량 위기 겪는 전 세계 인구

(2023년 추정치) (출처: 국제구조위원회(IRC))



### 보호 위험 요인 및 지원 필요 분야 조사\*



긴급 필요 분야 (1+2+3순위 합산, 중복 응답 가능)



정보 제공 필요 분야 (중복 응답 가능)



귀환 의사\*\*



\* 2022년 10월 ~ 2023년 2월 주변국 우크라이나 난민 20,009명 대상 설문 조사 기반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주변국 우크라이나 난민 3,900명 대상 설문 조사 기반

## 전쟁 1년, 다시 살아내는 ‘일상’ 이야기

오늘도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대피소를 찾아 이동해야 하지만, 이들은 전쟁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전쟁을 ‘일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지내며 가족의 최소한의 안위를 지키고 폭격으로 무너진 고향집을 수리하면서, 혹은 안전을 찾아 다른 마을이나 국경 너머 주변국으로 이동해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제 힘의 원천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고,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 우크라이나 실향민 릴리아(Lillia) -

“전쟁 초기와는 달리, 사람들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살 곳과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 나탈리아 시우니(Natalia Syunii) 유엔난민기구 파트너 기관 심리학 교수 -

### | 우크라이나: 가족을 지키는 타마라의 이야기



타마라와 손녀 © UNHCR/Victoria Andrievska

폭격이 잦아들었을 때 가족은 마침내 제대로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가족의 집은 굳건히 남아있긴 했지만 곳곳이 심각하게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지역 정부를 통해 유엔난민기구의 임시 거처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곧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창문과 지붕, 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혼자서 집수리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타마라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상실과 파괴의 고통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타마라는 손주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타마라는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에 감사하며, 전쟁 속에서도 위안을 찾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 홀로 놓여있지 않다고 느껴요. 이러한 도움은 제게 큰 힘이 되고 인류애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타마라(Tamara)는 자신의 집에 미사일이 쏟아지기 시작한 그날을 회상합니다. 가족 일부는 안전을 찾아 다른 마을로 떠났지만, 그녀는 몸이 불편한 남동생과 노모를 뒤로 하고 자신이 평생을 자라온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매일 폭격과 폭발 소리를 들으며 2주 동안을 지하실에서 숨어지냈습니다. 춥고 축축한 겨울 날씨로 어머니의 다리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감염이 다른 부위로 퍼지기 시작해 타마라는 폭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의료 시설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것만이 어머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 다행히 긴급 치료를 받아 어머니의 다리는 그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타마라의 이야기 더보기

고향 체르니히우(Chernihiv)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타마라의 가족 © UNHCR/Victoria Andrievska

### | 루마니아: 삶을 재건하는 에카테리나의 이야기



아들과 함께 루마니아에 머물고 있는 에카테리나 © UK for UNHCR/Ioana Epure

주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창고를 개조해 만든 시설로, 보호, 상담, 건강, 생계비 보조, 취업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카테리나는 현재 서점 겸 복합 사무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전쟁으로 한때 잃었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삶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피워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삶을 다시 일으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에카테리나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이곳에 온 다른 우크라이나 난민과 지역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던 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악몽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옆 마을이 공습받기 시작했을 때 에카테리나(Ekaterina)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남편과 반려견, 결혼 사진사라는 직업을 뒤로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루마니아가 처음 생각한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수도 부쿠레슈티(Bucharest)에 있는 롬엑스포(RomExpo)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에카테리나의 이야기 더보기

현재 생활에 적응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에카테리나 © UK for UNHCR/Ioana Epure

## 우크라이나인의 '일상'을 돕는 유엔난민기구



드니프로(Dnipro) 주민을 돕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들 © UNHCR/Oleksandra Lytvynenko



르비우(Lviv)에서 생계비 신청을 돕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Igor Karpenko



긴급 건축 키트를 받아가는 하르키우(Kharkiv) 주민 © Humanitarian Mission Proliska/UNHCR/Artur Ulianytskyi

### 우크라이나

199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해 온 유엔난민기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중앙 부처 및 6개 주 당국과 3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호, 임시 거처 및 비식량 물품, 캠프 관리 및 조정 부문에서 인도주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2년 보호, 임시 거처 및 주거, 생필품,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총 432만 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1,778,000**명

식량 및 필수 구호품 지원  
(접근 어려운 지역 인도적 수송 포함)

**164,000**명

공동 거주 시설, 집수리 등을 통한 임시 거처 지원

**1,560,000**명

겨울나기 지원 (생계비 보조, 겨울용품 지원, 임시 거처 수리 및 공동시설 확장 등)



우크라이나 활동 더보기



**유엔난민기구 우크라이나 사무소 총 11곳**  
(2023년 2월 기준)

- 대표부 사무소: 키이우(Kyiv)
- 부사무소: 2곳
- 현장 사무소: 4곳
- 현장팀: 4곳

**1,512,400**명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서 보호 지원  
(사회심리적 지원, 법률 보조 등)

**1,463,300**명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서 생계비 지원  
(기본 필요 충족 및 보호 목적, 다목적 등)

### 우크라이나 주변국

사태 초기에는 난민의 영토 접근 보장, 임시 거처 및 식량 제공 등 난민의 기본 필요에 대응하는 것에 주력했으나, 점차 장기적 대응으로 전환해 수용국 정부가 국가 제도에 난민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에서 약 250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500,000**명

교육, 의료, 숙소, 생계 등에 대한 정보 접근 지원



디지털 블루닷 센터 (영문) 보기

**185,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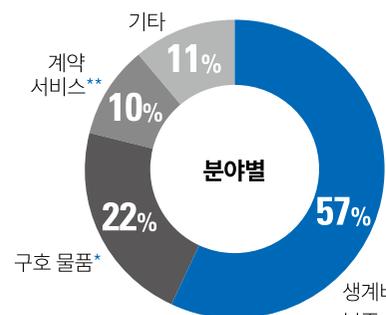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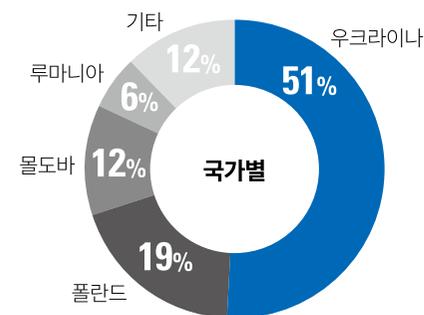
주변국 39개 블루닷 센터\*를 통한 지원

\*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보호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통합 지원 공간으로 주요 난민 이동 경로, 등록 및 수용 센터, 기타 전략적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파란색 점 표식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된 곳

2022년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위해 개인 후원자, 기업, 재단 등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만 미화 약 6억 달러의 후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 식량 제외, 담요, 위생 키트, 겨울옷 등 포함  
\*\* 건설, 운송, 창고 임대 등

“생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 우크라이나 실형민 카테리나(Kateryna) -

2023년에도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와 주변국 현장을 지키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려 지하 대피소에 있는 동안에도 유엔난민기구의 구호 활동과 현장 지원은 계속됩니다.”

- 우크라이나 사무소 앤-마리(Anne-Marie) 대외협력 담당관 -



유엔난민기구 직원 지하 대피소 영상

# 시리아 내전 12년

## “인내의 시간이 만든 강인한 사람들”



시리아 현황(영문) 보기

### 12년의 내전

2023년 3월 15일이면,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12년째가 됩니다. 인구의 절반이 시리아와 주변국에서 실항민 혹은 난민으로 살고 있고 이들의 오랜 피난 생활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레바논 아르살(Arsal)에서 담요와 연료 등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리아 난민들 © UNHCR/Andrew McConnell

### 시리아인들의 ‘오늘’을 함께해온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활동 더보기

1991년부터 시리아에서 활동해온 유엔난민기구는 아래 6개 주요 분야에서 실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보호**  
커뮤니티 센터, 위성 센터, 이동 지원팀 등을 통해, 아동 보호, 사회심리적 지원,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등록 및 서류 취득과 같은 법적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생계비 보조**  
가장 취약한 난민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보조합니다. 취약성은 나이와 성별에 따른 필요, 개인 보호 위험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2개월마다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주요 구호 물품**  
담요, 수면 매트, 매트리스, 물통, 방수포, 조리 도구, 태양광 램프 등 구호 물품과 필요에 따라 계절 용품 (충전식 선풍기, 겨울 옷 등)도 지원합니다.



**4 임시 거처**  
이라크인과 국내 실항민이 거주하는 시리아 북동부 난민촌에 텐트와 긴급 거처 키트를 제공하고 난민촌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합니다. 도시 난민들에게는 문과 창문, 전기 장비, 물과 위생 시설 등을 제공해 스스로 집을 수리할 수 있게 돕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보도나 공동시설 복구,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5 자립 및 생계**  
취약 계층의 자립성을 높이고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돕습니다. 종자와 가축 등을 통한 농업 보조, 배수 시스템 복구, 직업 훈련 학교 지원, 훈련과 보조금을 통한 소규모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6 의료 보건**  
의료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내 커뮤니티 센터에 보건실(health points)을 설치해 일차 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자원봉사자나 이동 지원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리아에서만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여러 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지역 난민 계획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인내의 시간이 만든 강인한 사람들의 이야기

장기화된 내전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 | 시리아: 실항민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아미나의 이야기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 아미나 © UNHCR/Saad Sawas



황이 충분히 안전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의 집은 절반쯤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직업도, 아무 수입원도 없었던 아미나와 아이들은 몇 년간을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아미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적은 수입은 아이들의 학비를 대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8년간의 피난 생활을 마치고 아미나(Amina)는 고향인 홈스(Homs)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아이의 어머니이자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이기도 한, 밝고 낙천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이 여성은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자녀들 모두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살던 당시 남편은 운전기사로 일했고 아미나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폭력이 심화되자 가족은 시리아 내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했고, 집을 떠난 이후 남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미나는 상

아미나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된 유엔난민기구는 가족에게 소액의 보조금과 직업 훈련을 지원했고 아미나는 가정용품 파는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가게 선반에는 접시, 유리잔, 주전자, 바구니 등形形色색의 일상용품들이 가지런히 쌓여있습니다. 동네 손님들이 이곳을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아미나의 작은 가게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가게도 번창하고 있으니 기쁩니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이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방문한 유엔난민기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미나 © UNHCR/Saad Sawas



아미나의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의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되지만, 딸아이의 열정과 희망이 온 가족에게 힘의 힘이 돼요.”

- 레바논 거주 시리아 난민 사피야(Safiyah) -

내전 12년, 오랜 기간 내전을 겪으며 인내의 세월을 보내온 시리아인들이 내일을 꿈꾸며 또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주세요.

### | 요르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금손 장인 주잔의 이야기



수공예 기술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잔 © UNHCR/Hazm Almazouni



수선해서, 가구 하나 가격의 10분의 1로, 가구 두 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바느질과 뜨개질, 제화, 가구 수선까지, 주잔은 그렇게 생계 수단을 넓혀 갔습니다.

지난 세월은 바느질과 뜨개질을 가르쳐주던 어머니의 말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공예에 통달하는 것은 결국 손에 재산을 쥐는 것과 같다’는 어머니의 말은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도움으로 주잔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잔은 현재 쿠션 제조 공정에서 자수를 담당하고 있고 그녀가 만든 자수 커버는 이케아(IKEA)에서 판매됩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그녀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줍니다. “전 세계 어디에선가 제가 만든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 기술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느껴져요. 전 이제 더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비로소 제가 존재합니다.”

2012년 시리아를 떠나 요르단으로 피난한 주잔(Zuzan)의 가족은 자타리(Za'atari) 난민촌을 나온 이후 몇 주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에게 매트리스 몇 장과 담요 몇 장, 옷과 약간의 돈밖에 없었지만, 주잔과 남편은 허름한 방을 구해 벽을 칠하고 고장 난 것들을 고치며 밀바닥부터 새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잔은 중고 시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색상의 스웨터를 사다가 실을 다시 짜내어 새 옷을 해 입혔는데, 주잔의 솜씨를 알아본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이 옷을 주문하면서 주잔은 수입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실직 상태였던 제화공 남편에게 제화 기술도 배워 부부는 함께 신발을 만들었고 이들은 지역 시장에서 곧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늘면서 가족은 값싼 중고 가구를 살 수 있게 되었고, 주잔은 오직 두 손과 의지로 가구에 새 천을 씌우고



재봉틀 작업을 하고 있는 주잔 © UNHCR/Hazm Almazouni



주잔의 이야기 더보기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

## “우리는 여전히 현장을 지킵니다”



지진으로 붕괴된 시리아 하마(Hama) 지역 건물들 ©UNHCR

###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진 그날

현지 시각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에서도 피해가 컸습니다. 3월 2일 기준, 양국에서 사망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진앙지 부근에서 1,5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튀르키예는 8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약 400만 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튀르키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이 중 370만 명이 시리아인입니다. 12년간 분쟁을 겪어온 시리아도 이번 지진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진 이전에도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는 1,530만 명에 달했고,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약 88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죽는구나 싶었어요. 주위가 마구 흔들렸고 아내는 지진이 났다며 소리쳤어요.”

- 시리아 국내 실향민 마젠(Mazen) -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린 노숙해야 했어요. 아침까지 거리에서 있었어요.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두려워서 그럴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서 가져온 담요만 안에 던져놓고 달려 나왔어요. 그 이후 이틀 밤을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 시리아 국내 실향민 아지자(Aziza) -



시리아 알레포(Aleppo)의 회교 사원에서 대피 중인 이재민들 ©UNHCR/Hameed Maarouf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진 이재민 ©UNHCR/Saad Sawas

## “우리는 현장을 지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유엔난민기구는 지진 발생 직후 양국 정부, 파트너 기관,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구호 물품과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인 수요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파트너 기관과 함께 구호 물품을 배포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UNHCR/Hameed Maarouf

### 유엔난민기구 튀르키예 활동

- 1960년대부터 튀르키예 정부와 난민 문제 협력, 유엔난민기구의 가장 큰 활동국 중 하나
- 대표부 사무소 1곳, 부사무소 1곳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인 가지안테프(Gaziantep), 하테이(Hatay), 산리우르파(Sanlıurfa) 담당), 현장 사무소 5곳

###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활동

- 1991년부터 활동 시작
- 대표부 사무소 1곳, 부사무소 3곳, 현장 사무소 3곳, 현장팀 2개



지진 구호 및 재건 활동 더보기

### 주요 구호 활동 (3월 2일 기준)



시리아

**29,396** 개

북서부 포함 시리아 전역에서 구호 물품 키트 전달, 총 141,280명 지원

**135,526** 명

북서부 포함 시리아 전역에서 보호 지원

**537,900** 개

시리아에서 고령/장애 이재민을 위한 성인용 기저귀 지원

**68,300** 점 / **31,450** 점

시리아에서 겨울 외투 및 겨울 의복 키트 지원

**3,382** 개

시리아 북서부에 텐트 전달, 총 16,910명 지원 (2개 국경 지점 개방 후 구호 물품 호송에 10회 참여)



튀르키예

튀르키예 정부가 국제기구 혹은 유엔난민기구에 직접 요청하는 사항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구호 물품 전달

보온 담요

**102,000** 장

침낭

**45,000** 개

위생 키트

**40,800** 개

접이식 침대

**28,700** 개

텐트

**28,600** 개

조리도구 세트

**19,500** 개

매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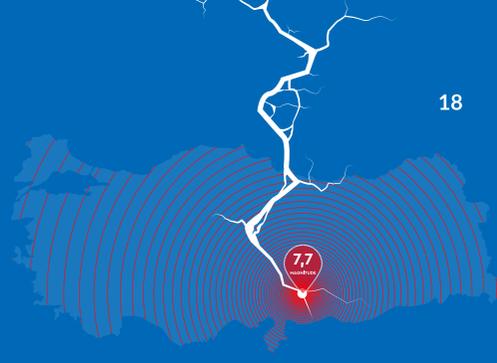
**15,300** 장

방수포

**10,000** 개

유엔난민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 피해 현장에서 현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이들에게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세요.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현장 직원들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많은 삶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사무소를 두고 일해 온 유엔난민기구는 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현장을 지키며, 정부 당국 및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이재민 구호와 재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시리아 알레포 구호 현장에서 갈리아 무살리(Ghalia Moussalli)



저희 팀은 지금 알레포(Aleppo)에서 지진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배포하는 배급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피소에서도 구호 물품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가족들은 담요도, 매트리스도, 옷도 없이, 지난 이틀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진 이재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파트너 기관과 함께 계속 필요한 구호 물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영상 보기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지진의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인, 시리아인들과 함께 연대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곳 어디에서나 현장 팀을 통해 생존자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



## 루마니아 구호 물품 공수 현장에서 파블로 자파타(Pablo Zapata)



저희는 이틀째 루마니아 부쿠레슈티(Bucharest)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2,500개의 텐트, 660개 이상의 겨울 지원 키트를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비슷한 양의 텐트, 위생 키트 10,000개, 접이식 침대 20,600개를 육로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튀르키예가 그동안 수백만 명의 난민에게 공간과 마음을 열고 함께해온 것처럼, 유엔난민기구는 이 위기의 순간 튀르키예와 함께합니다. 이러한 물품들로 지진 이재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이들의 집과 삶이 하루빨리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기

## 시리아 알레포 공동 대피소에서 마크 맨리(Mark Manly)



저는 지금 시리아 알레포의 공동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2월 6일 발생한 지진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도 이미 12년간 위기와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분쟁으로 이미 고향을 떠난 많은 이들이 이제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파트너 기관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보온 담요, 취침 매트, 조리 도구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져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지진 발생 직후 신속하게 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덕분에 필요한 곳에 물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기

#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의 후원의 손길로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지원 현황 업데이트: 2023년 1월~3월)



후원금 영상 보기

## 1 말리

말리 북부에서 발생한 무장 세력의 폭력과 위협으로 3,700명 이상의 부르키나파소 난민과 말리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가운데,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 지역 정부와 함께 실항 가구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긴급 거처, 교육, 식량 및 물 공급, 생계비 보조, 경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고국 분쟁을 피해 말리로 들어온 부르키나파소 난민들에게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피난입니다.



폭력을 피해 이동한 지역에서 간이 부엌을 만들어 요리 중인 실항민 여성  
© UNHCR/Attaher Ag Mohamed Ali



르완다에 도착한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Lilly Carlisle

## 2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무장 세력 폭력에 대응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1,154가구를 부차가라(Buchagara) 실항민촌에 새로 세워진 긴급 거처로 이동 지원하고 로에(Rhoe) 실항민촌에 1,000채의 방수포 벽 거처를 새로 지원했습니다. 주변국 르완다에 도착한 난민들에게도 식량, 임시 거처, 보호 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르완다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Lilly Carlisle



유엔난민기구가 파트너 기관과 마련한 르완다 임시 센터에서 위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콩고 난민들  
© UNHCR/Lilly Carlisle

## 3 부룬디

교통편, 식량, 생계비, 가정용품 지원 등을 포함해 부룬디 난민들의 자발적인 고국 귀환을 도왔습니다. 2017년 이후 20만 명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부룬디 귀환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들  
© UNHCR/Samuel Otieno



티그라이 지역에서 보호 상담을 받고 있는 에리트레아 난민 여성  
© UNHCR/Samuel Otieno



소말리아 난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Muluken Tadesse



유엔난민기구 구호 트럭  
© UNHCR/Kaan Ertaman

## 4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술(Sool)지역의 무력 충돌로 몇 주간 6만 명 이상이 에티오피아로 피난하면서, 에티오피아 정부 및 지역 당국,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임시 수용센터를 세우고 1,000가구 이상에 담요, 물통, 양동이, 조리 도구, 방수포, 모기장 등을 지원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도 파트너 기관을 통해 3,000가구 이상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향후 3개월간 42,000명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티그라이(Tigray)에서는 작년 11월 평화 협정 이후 파트너 기관과 함께 의약품, 실터 자재, 의복, 가정용품, 담요 등 물품 전달을 확대할 수 있었고, 재건과 회복,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5 방글라데시

지난 3월 초 로힝야 난민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2,000채의 거처가 소실되어 12,000명이 집을 잃고, 90개의 의료 시설과 학습 센터가 피해를 본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 당국, 파트너 기관, 로힝야 난민 봉사자들과 함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가 훈련하고 지원한 90명 이상의 로힝야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응급 처치 제공, 의료 시설 위탁, 심리사회적 지원, 대피 및 소방 작업, 가족 재결합 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로힝야 난민촌  
© UNHCR/Sahat Zia Hero

화재 대응을 하고 있는 로힝야 봉사자들  
© UNHCR/Sahat Zia Hero

# 유엔난민기구 소식

## 글로벌



© UNHCR/Colin Delfosse

### 최고대표 우크라이나 방문

“건물은 파괴됐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Zelensky)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전쟁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공 대피소 지원을 포함해, 생계비 보조, 현물 지원, 주거지 수리, 법적 지원,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430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 UNHCR/Charity Nzomo

### 에티오피아 긴급구호 2단계 지정, 분쟁과 가뭄 덮친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술(Sool)지역의 라스카누드(Laascaanood)에서 발생한 분쟁이 악화하여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에티오피아는 긴급구호 2단계 지역으로 상향 지정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가 위치한 동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6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40년 만에 가장 길고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부족한 물과 식량, 분쟁과 불안정으로 생존을 위해 피난하는 사람의 수가 더 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이 지역에서 330만 명을 돕기 위해 미화 1억 3,700만 달러의 기금 모금을 시작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 한국



© UNHCR

### 전혜경 대표 국회 및 국립외교원 특강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일치를 향한 글로벌 리더십 청년학교”와 국립외교원에서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정규 교육과정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유엔난민기구의 임무와 역사, 전 세계 강제 실형 상황 및 주요 실형 사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후원자 대상 #드림볼 활용 아이디어 공모 성료

2022년 11월 열린 “스포츠로 하나되는 우리”를 주제로 한 드림볼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난민들이 손수 제작한 축구공인 #드림볼을 재미있게 활용할 방법에 대해 총 333명(팀)의 후원자님들께서 재치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내주셨고, 그중 9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분들의 이름으로 한국 후원자님들을 대표하여 르완다 난민촌에 스포츠 용품을 기부하였으며, 관련한 기부 후기는 다음 소식지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정희 님,  
노원 상원유치원,  
동문장애인복지관  
풋살팀 동문FC,  
샘물지역아동센터,  
유민서 님,  
의정부고등학교  
UFO팀,  
중산중학교 3학년 1반



드림볼을 이용해 2인 3각 달리기 하고 있는 중산중학교 3학년 1반 학생들

## 한국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 후원, 고맙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를 위해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난방 덜 틀어 가며 아끼신 돈으로 아이들 추운데 잠바 하나라도 입힐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할아버님, 또래 친구들 도와 달라며 설에 받은 세뱃돈을 내어준 어린이 후원자, 결혼식 축의금을 보내주신 후원자님, 밴드 크라이그의 한경록 후원자님 등 수많은 분께서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인 후원자 분들뿐만 아니라, 네이버, 대한약사회, 현대해상화재보험, KH바텍을 포함한 많은 기업, 재단, 단체에서도 후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지난 2월 초 긴급구호 모금 시작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38억 원 이상의 후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진 이재민 구호와 재건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비바람을 막아줄 거처로, 따뜻한 담요로,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 후원 신청서

후원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나, 이미 후원하고 계시는 분 중 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자(1666-539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

현재 유엔난민기구에 후원 중이신가요?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휴대전화	생년월일	이메일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기금선택	<input type="checkbox"/>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input type="checkbox"/> 시리아 긴급구호 <input type="checkbox"/>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 <input type="checkbox"/> 가장 필요한 곳에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400만 원이면, 시리아에서 1,000명에게 수면 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300만 원이면, 시리아에서 100명에게 매트리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150만 원이면, 우크라이나 가정집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35만 원이면, 우크라이나 실형민 가족에게 연료 기반 난방기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정기 <input type="checkbox"/> 일시) _____ 원

\*정기 후원자가 일시 후원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에 출금되며,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재출금이 시도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후원금 사용내역은 별도 소식지 20-2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Thank You!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상을 굳건히 살아내는  
우크라이나인들을 기억하며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세요.

## 2023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With 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더 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분 중 일부 추천하여 유엔난민기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참여방법 우측 QR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 완료



전화 02-773-7272 (기업후원 02-773-7075) 이메일 [withyou@unhcr.or.kr](mailto: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www.unhcr.or.kr](http://www.unhcr.or.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http://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http://happylog.naver.com/unhcr)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주소 (우)04523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를 잉크를 사용합니다.